

##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의 반영 방안: 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을 중심으로<sup>1)</sup>

한 혜 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이 승 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 《 요 약 》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전면 적용되어 온 교과 집중이수의 적용 실태를 2011학년도에서 201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대상 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차기 국가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부분을 어떻게 개선·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편성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와 관련된 부분을 차기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으로서 다음을 제안하였다. 첫째, 총론 문서에 제시된 교과 집중이수 지침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제한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교과 집중이수의 시행은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지침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집중이수 시행은 오로지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서만 시행하도록 하고 집중이수를 한다고 하면서 수업시수를 감축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교과 집중이수를 통한 수업 혁신 지원방안,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미이수 및 중복이수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국가 교육과정 지침, 중학교 선택 교과, 주당 수업시수

---

---

1) 본 연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에서 수행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서 편성안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logoshj@hanmail.net

## I. 서론

‘교과 집중이수’라는 용어는 홍후조, 박순경(2002, pp. 104-106)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 및 학습의 효율성 제고의 관점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몇 차례의 정책적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p. 21)는 지침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 중인 2009년 6월 11일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 중의 하나인 ‘교육과정의 자율화’ 정책의 여섯째 과제[“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하여 학습부담 경감(중1-고3 공통)”](교육과학기술부, 2009a, p. 5)로 강조된 바 있다. 20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집중이수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p. 10, 17)는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2010년 5월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 집중이수의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고등학교 교양과목과 중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고등학교의 교양과목 성격을 갖는 과목은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는 조항 대상 과목에서 제외”(교육과학기술부, 2010)함으로써 교과 집중이수 적용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7월 학교폭력 문제의 등장과 실천적 인성교육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을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 11, 21)로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권장 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교과 집중이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필수 사항으로 제시되어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201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완화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타이틀 하에 국가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과 집중이수를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교과 집중이수 정책의 변화 속에서 고등학교 교양과목과 중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고등학교의 교양과목 성격을 갖는 과목,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의 8개 이내 편성 교과목에서의 제외가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기당 8개 교과목이 아니라 11~12개 교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교과 집중이수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김재춘, 최필순, 2012, p.

134)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이러한 시각에 의한다면 차기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집중이수라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없지 않으며, 교과 집중이수 정책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교과 집중이수 정책이 시행되어 온 교육현장의 실태와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체계적이면서 면밀한 분석 이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박순경 외(2014)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논의의 핵심은 교실 수업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블록타임제를 적극 권장하는 지침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추가하는”(박순경 외, 2014, p. 64)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가 여전히 국가 교육과정 논의에서 살아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일정 부분 의미있는 교육활동에 기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3년간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을 통하여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의 적용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차기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분석에 따른 본 연구의 차별성

교과 집중이수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것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 시행되기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우선, 총론의 관점에서 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과 집중이수의 전면 도입의 기틀을 마련한 연구로서는 홍후조, 박순경(2002), 홍후조(2008a, 2008b), 홍후조, 강익수 외(2009), 홍후조, 광병선 외(2009)가 있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집중이수가 전면 도입된 이후 적용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박순경 외(2010)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이근호 외(2010)의 ‘집중이수로 인한 전출입 학생의 교육과정 미이수(중복이수) 문제 해결 방안 연구’, 이미숙 외(2011)의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모형 연구’, 홍후조(2011)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집중이수의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총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교과 집중이수 시행 전이나 시행 초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 집중이수 적용 실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교과 집중이수를 현장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이미숙 외(2011, pp. 33-37) 연구는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가 적용된 2011년 초기 편성 현황 분석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선도학교 부장교사 대상 심층 면담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박순경 외(2014) 연구에서는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선행 연구로는 민경훈(2009)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전세경(2010)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실과] 교과 군 구성에 따른 실과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쟁점과 과제', 조석환, 이언주(2010)의 '도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민용성 외(2012)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이 있다. 교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집중이수의 대상이 되는 교과들을 중심으로 집중이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거나(민경훈, 2009; 전세경, 2010; 조석환, 이언주, 2010), 2013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집중이수 대상이 되는 교과의 적용방안을 구안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민용성 외, 2012).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와 관련된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의 근본 취지인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과 집중이수는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을 학기, 학년별로 집중이수하게 함으로써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이면(8개 이하)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줄어들고 학습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러한 전제가 어느 정도로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집중이수가 사전의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에만 초점을 맞추어 적용되었고, 특히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방임되었기 때문에(홍후조, 2011; 이은정, 2012)<sup>2)</sup> 학교 현장에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이 고시되고 그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 총론부터 먼저 현장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비판을 전면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첫째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개의 규정은 이제 유명무실해졌으므로 교과 집중이수는 학기당 전체 학기 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개별 교과목의 관점에서 교과 집중이수가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는 교과목 중심으로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교과 집중이수가 제대로 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의미있는 교육과정 정책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박순경 외(2014)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블록타임제 수업 운영 방안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를 적용하면서 1시간 단위로 수업을 하던 것을 2-3시간씩 블록으로 묶어서 수업을 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교사의 일방적인 교육내용 전달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사도, 학생도 매우 힘든 수업이 될 수밖에 없다.

2) 홍후조(2011)와 이은정(2012)에 의하면 교과 집중이수가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방임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 이수 시기 등을 정해주고 교과 집중이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원 수급 및 담임 배치 문제, 미이수 및 중복이수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함.

이상의 선행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안을 분석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 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과목별로 집중이수 편성의 특징을 다각도로 밝힘으로써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를 고려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의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적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2011년 입학생 대상 교과 집중이수 적용 실태는 2011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여 전수조사 및 분석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둘째, 2012년 입학생과 2013년 입학생 대상 3개년 교육과정 편성안을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의 중학교 3,162개교(2012년 기준) 중 지역 및 규모를 고려하여 3%의 학교를 표집하여(94개교) 교육과정 편성안을 온라인상으로 수집하였다. 즉, 2012년과 2013년 입학생 대상 교과 집중이수 적용 실태는 2011년 입학생 자료와 같이 전수는 아니지만 모집단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규모를 고려하여 무선 표집의 방법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2012년과 2013년 입학생 편성안 수집 대상 학교 수를 학교규모별, 지역별로 제시하면 이하 <표 1>과 같다.

<표 1> 편성안 분석 대상 학교 수

규모별 학교 수			지역별 학교 수															
대	중	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	22	23	12	5	3	3	2	3	2	18	4	5	6	7	7	8	8	1
94			94															

#### 2. 분석 방법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부분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중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이 필요

하다.

첫째,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에 대하여 이수 학기 수별 학교 수 및 비율을 조사하여 6학기 미만으로 이수를 하는 경향이 큰 교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학기당 이수 과목 수에 대한 지침을 완화시킨 2012년 7월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6학기 미만으로 이수를 하는 경향이 큰 교과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실제 집중 이수를 하는' 학교 수와 비율을 산정하여 교과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실제 집중 이수를 한다'는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이전과 비교하여 이수 학기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한 경우(최소 2시간)를 의미한다. 예컨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비하여 이수 학기 수가 줄어들었지만 전체 수업시수도 교과(군)별 시수의 20% 감축 가능 규정에 의거하여 줄어들어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이 되는 경우는 집중이수라고 보지 않는다. 즉, 수업시수 20% 감소의 경우를 감안하여 각 교과별로 최대 몇 학기 이내 이수인 경우를 집중이수로 볼 수 있는지의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교과목별로 집중이수를 실제 실시하는 학교수와 비율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관련 지침을 수정한다면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에 대한 제한 부분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교육과정 개정 이후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2013학년도 입학생 대상 편성안에 대해서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분석하였다.

넷째, 집중이수는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목에 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당 수업시수가 적으면서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주변부에 있는 선택 교과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교과 집중이수와 관련해서만이 아니고 차기 중학교 국가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과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연도별, 학교별 선택 과목 종류 및 채택 비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입학생 대상 편성안에 대해서는 각 선택 과목별 3개년 이수 평균 시수를 산정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후 선택 과목 편성 및 운영상에 나타난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택 과목에 분석은 선택 과목 두 개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는 학교(예컨대, 한문과 정보 중 한 과목, 한문과 중국어 중 한 과목 등)는 모두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단,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생활외국어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시켜 산정하였다.

이러한 편성안 분석의 관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편성안 분석 관점

분석 관점		분석 대상	2011학년도 편성안	2012학년도 편성안	2013학년도 편성안
• 각 교과목의 이수 학기 수별 학교 수 및 비율			✓	✓	✓
• 교과별 실제 집중이수 실시 학교 수 및 비율			✓	✓	✓
•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
• 선택 과목	- 선택 과목 종류 및 채택비율		✓	✓	✓
	- 3개년 총 이수 시수 평균			✓	✓

## IV. 분석 결과

### 1. 각 교과목의 이수학기별 학교 수 및 비율

교육과학기술부의 분석에 의하면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는 처음 시행되었던 2011년에는 전국의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과학, 체육, 영어는 대부분 6개 학기에 걸쳐 이수하고 있었고, 기술·가정은 4개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학교가 많았다.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 한문, 정보, 생활외국어는 2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교과목이 주요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이미숙 외, 2011, p. 34).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11학년도 교과 이수학기별 학교 및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11학년도 교과 및 이수학기별 학교 수 및 비율<sup>3)</sup>

교과 편성학기수	교과	국어	사회(역사 포함) / 도덕			수학	과학 / 기술·가정		체육	예술		영어	선택		
			사회	역사	도덕		과학	가정		음악	미술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6개 학기 편성	학교수	3,221	28	24	26	3,218	3,117	81	2,797	10	9	3,217	10	3	10
	비율 (%)	100	0.87	0.75	0.81	99.9	96.77	2.51	86.84	0.31	0.28	99.88	0.34	0.22	0.89
5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92	3	18	1	44	112	165	16	13	3	8	1	0
	비율 (%)	0	2.86	0.09	0.56	0.03	1.37	3.48	5.13	0.50	0.40	0.09	0.27	0.07	0

3) 본 자료는 교과부 내부 자료로서 이미숙 외(2011, p. 34)에서 인용한 것을 학기편성별 비율을 추가·수정하여 제시한 것임.

교과 편성학기수		국어	사회(역사 포함) /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영어	선택		
			사회	역사	도덕		과학	가정		음악	미술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4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444	54	109	1	52	2,827	248	69	52	1	213	45	42
	비율 (%)	0	13.78	1.68	3.38	0.03	1.61	87.77	7.70	2.14	1.61	0.03	7.21	3.27	3.74
3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508	319	261	0	7	163	11	241	241	0	105	15	10
	비율 (%)	0	15.77	9.91	8.10	0	0.22	5.06	0.34	7.48	7.48	0	3.56	1.09	0.89
2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2,148	2,798	2,806	1	1	38	0	2,883	2,905	0	2,232	916	830
	비율 (%)	0	66.69	86.89	87.16	0.03	0.03	1.18	0	89.53	90.19	0	75.58	66.57	73.84
1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1	22	1	0	0	0	0	1	1	0	385	396	232
	비율 (%)	0	0.03	0.68	0.03	0	0	0	0	0.03	0.03	0	13.03	28.78	20.64
학교 총수		3,221	3,221	3,220	3,221	3,221	3,221	3,221	3,221	3,220	3,221	3,221	2,953	1,376	1,124

(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음영표시는 각 교과목별 가장 많이 편성된 학기 수를 가리킴.)

2011학년도에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2012년에 와서 다소 변화를 보인다. 2011학년도 편성안 분석에서 2개 학기 교과 집중이수를 제일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 교과 중 사회, 역사, 도덕, 음악, 미술이 2개 학기 편성 비율은 줄어들면서 3개, 혹은 4개 학기 편성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역사는 4개 학기 편성 비율이 2011학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늘어났고, 특히 역사는 4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이수 시행 이전으로 많이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미술의 경우 2011학년도에서 2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80%를 넘었지만, 2012학년도에서는 2개 학기에서 5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가정의 경우 2011학년도에서 4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80%를 넘었고 5개 혹은 6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은 비교적 높지 않았지만, 2012학년도에 와서는 5개 및 6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11학년도에서 교과 집중이수 대상으로 파악되었던 대부분의 교과들이 2개 학기 이수 편성에서 점차 이수 학기 수를 늘려 편성하는 정도에 비하여 선택 과목인 한문, 정보, 생활외국어의 경우는 2개 학기 이수 편성 학교 비율이 변함없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과목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경향은 2012학년도 편성안에서 파악된 기타 다른 선택 과목, 즉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2012학년도 교과 및 이수학기별 학교 수 및 비율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2012학년도 교과 및 이수학기별 학교 수 및 비율

교과  편성학기수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영어	선택					
			사회	역사	도덕		과학	기가		음악	미술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6개 학기 편성	학교수	94	0	0	0	94	92	15	89	1	1	94	0	0	0	2	0	0
	비율 (%)	100	0	0	0	100	97.87	15.96	94.68	1.06	1.06	100	0	0	0	4	0	0
5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1	0	9	0	2	20	3	23	18	0	1	1	0	0	0	0
	비율 (%)	0	1.06	0	9.57	0	2.13	21.28	3.19	24.47	19.15	0	1.32	3.13	0	0	0	0
4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27	50	26	0	0	57	2	15	28	0	13	1	1	12	1	0
	비율 (%)	0	28.72	53.19	27.66	0	0	60.64	2.13	15.96	29.79	0	17.11	3.13	2.86	24	6.25	0
3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38	12	27	0	0	2	0	27	23	0	11	2	0	1	1	0
	비율 (%)	0	40.43	12.77	28.72	0	0	2.13	0	28.72	24.47	0	14.47	6.25	0	2	6.25	0
2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28	31	32	0	0	0	0	28	24	0	45	22	31	29	11	9
	비율 (%)	0	29.79	32.98	34.04	0	0	0	0	29.79	25.53	0	59.21	68.75	88.57	58	68.75	82.82
1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0	1	0	0	0	0	0	0	0	0	6	6	3	6	3	2
	비율 (%)	0	0	1.06	0	0	0	0	0	0	0	0	7.89	18.75	8.57	12	18.75	18.18
학교 총수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76	32	35	50	16	11

(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음영표시는 각 교과목별 가장 많이 편성된 학기 수를 가리킴.)

2011학년도에 비하여 2012학년도에서 나타난 교과 집중이수 대상 교과들이 2개 학기 이수에서 점차 학기 수를 늘려서 편성하는 경향은 2013학년도에 와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사회와 역사는 4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각각 79.79%, 75.53%로 나타남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가 사회와 역사는 집중이수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의 경우는 6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30.85%로 늘어나고 집중이수를 하더라도 2개 학기가 아닌 4개 학기로 편성(53.19%)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미술은 6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각각 67.02%, 60.64%로 나타나 음악과 미술도 교과 집중이수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집중이수를 하더라도 2개 학기 편성이 아닌 4개 학기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에는 기술·가정의 경우 57.45%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6개 학기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4개 학기로 집중이수 편성을 한 학교는 39.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2개 학기 편성 학교 비율이 2011학년도나 2012학년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교과 및 이수학기별 학교 수 및 비율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2013학년도 교과 및 이수학기별 학교 수 및 비율

교과 편성학기수	교과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예술		영어	선택					
			사회	역사	도덕		과학	가정		음악	미술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6개 학기 편성	학교수	94	0	0	29	94	94	54	94	63	57	94	6	0	0	4	0	0
	비율 (%)	100	0	0	30.85	100	100	57.45	100	67.02	60.64	100	7.59	0	0	7.27	0	0
5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0	0	3	0	0	2	0	1	1	0	1	0	0	1	0	0
	비율 (%)	0	0	0	3.19	0	0	2.13	0	1.06	1.06	0	1.27	0	0	1.82	0	0
4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75	71	50	0	0	37	0	27	31	0	25	5	4	13	2	1
	비율 (%)	0	79.79	75.53	53.19	0	0	39.36	0	28.72	32.98	0	31.64	17.86	10.53	23.64	15.38	11.11
3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11	12	4	0	0	1	0	0	2	0	1	1	0	2	0	0
	비율 (%)	0	11.70	12.77	4.26	0	0	1.06	0	0	2.13	0	1.27	3.57	0	3.64	0	0
2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8	11	8	0	0	0	0	3	3	0	45	20	33	32	9	8
	비율 (%)	0	8.51	11.70	8.51	0	0	0	0	3.19	3.19	0	56.96	71.43	86.84	58.18	69.23	88.89
1개 학기 편성	학교수	0	0	0	0	0	0	0	0	0	0	0	1	2	1	3	2	0
	비율 (%)	0	0	0	0	0	0	0	0	0	0	0	1.27	7.14	2.63	5.45	15.38	0
학교 총수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94	79	28	38	55	13	9

(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음영표시는 각 교과목별 많이 편성된 학기 수를 가리킴.)

이수 학기 수 편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2012년 7월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집중이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과는 선택 과목이며,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은 집중이수를 하더라도 4학기 이수로 실시하는 비율이 높고, 사회와 역사는 4학기 이수로 편성하는 학교가 가장 많지만 여전히 2학과 3학기의 집중이수로 편성하는 학교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교과별 실제 집중이수 실시 학교 수 및 비율

교과 집중이수의 근본 취지를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를 6개 학기 분산 이수하게 하는 것보다 이수 학기 수를 줄이고 주당 수업시수를 늘려 집중이수하게 함으로써 해당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한다’는 관점에 둔다면, 교과 집중이수 시행 여부는 이수 학기 수 뿐만 아니라 주당 수업시수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4개 학기로 집중이수를 하지만 3개년 수업 총 시수가 68시수인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집중이수를 통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목별 집중이수 실시 정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사회, 역사,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 선택 과목의 경우 수업시수 20% 감소의 경우를 감안하여 주당 수업시수가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이전보다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학기 이내여야 하는가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와 역사는 3개 학기 이내 편성(집중이수 시행 이전에 이미 4개 학기로 편성되었으므로), 도덕, 기술·가정, 음악, 미술의 경우에는 4개 학기 이내로 편성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수가 2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만 집중이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4개 학기 이내로 편성하면서 주당 수업시수가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로 산정되었다. 2011학년도에 경우에는 편성안에 대한 원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1학년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분석은 생략되었다. 이러한 교과별 집중이수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을 표로 제시하면 이하 <표 6>과 같다.

<표 6> 집중이수 실시 정도 분석을 위한 기준<sup>4)</sup>

구 분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 중학교 일반적인 편성안							20% 감소 시수	집중이수 실시 여부 판단 기준 (최대 편성학과와 주당 최소 수업시수)
		교과별 시간배당 기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회/도덕	도덕	170	34	34	34	34	17	17	136	4학기
	사회	170	51	51			34	34	136	3학기
	역사	170			51	51	34	34	136	3학기
기가		272	34	34	51	51	51	51	217.6	4학기
예술	음악	136	34	34	17	17	17	17	20% 증감 불허	4학기
	미술	136	17	17	17	17	34	34		4학기
선택	선택1	204 (재량활동)	17	17	17	17	17	17	163.2	4학기
	선택2		17	17	17	17	17	17		주당 수업시수 2시간 이상

4) 여기에서 기준은 교과별 집중이수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교과 집중이수 시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준임.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교과별 실제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의 비율을 학년도별로 산정한 결과, 2013학년도에도 집중이수를 시행하는 비율이 40%이상인 교과를 높은 비율 순서로 제시하면, 생활외국어(92.11%), 정보(82.14%), 도덕(65.96%), 한문(65.82%), 기술·가정(40.43%)이다. 2011학년도 집중이수 시행 학교 비율과 2013학년도 집중이수 시행 학교 비율 사이의 감소폭이 가장 큰 교과는 역사(2011학년도 97.48% - 2013학년도 24.47% = 73.01%)이며, 그 뒤로 음악(67.28%), 사회(62.28%), 미술(61.02%), 기술·가정(53.58%), 도덕(32.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별 실제 집중이수를 하는 학교의 비율을 학년도별로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교과목별 실제 집중이수 실시 학교 수 및 비율

학년도 교과(목)	2011			2012			2013			집중이수 조건
	총 학교수	집중이수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집중이수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집중이수 학교수	비율	
사회	3,221	2,657	82.49	94	66	70.21	94	19	20.21	1~3학기 이수
역사	3,220	3,139	97.48		44	46.81		23	24.47	
도덕	3,221	3,177	98.63		85	90.43		62	65.96	1~4학기 이수
기술·가정		3,028	94.01		59	62.77		38	40.43	
음악	3,220	3,194	99.19		70	74.47		30	31.91	
미술	3,221	3,199	99.32		75	79.79		36	38.30	
한문				76	71	93.42	79	52	65.82	1~4학기 이수 주당 수업시수 2시간 이상
정보				32	26	81.25	28	23	82.14	
생활외국어				35	29	82.86	38	35	92.11	
진로와직업				50	24	48	55	15	27.27	
보건				16	5	31.25	13	1	7.69	
환경				11	6	54.55	9	3	33.33	

(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 3.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2013학년도 입학생 대상 편성안에 대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분석은 체육, 음악, 미술, 선택 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은 학기마다 이수 교과목 수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기별 평균 이수 교과목 수, 학기당 평균 이수 교과목 수, 3개년 평균 이수 교과목 수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학기별 평균 이수 교과목 수						학기당 평균 이수 교과목 수	3개년 평균 이수 교과목 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0.5	10.6	10.7	10.8	10.8	10.9	10.7	64.2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학기당 평균 이수 교과목 수가 10.7이라는 것은 2012년 7월 개정 이후 학기당 최대 12개 정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은 교과 집중이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이전에 교과 집중이수를 적용하여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교원수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에 비하여 2013년에 교과 집중이수를 시행하는 교과나 학교의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선택 과목별 채택비율 및 3개년 총 이수 시수 평균

본 연구의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에서 드러난 사실은 2010년 5월말에 교과 집중이수 대상 교과에서 제외가 허용되었던 선택 과목에서 그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2개 학기 집중이수를 시행하는 학교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선택 과목의 경우 교과 집중이수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선택 과목별 채택 학교 비율을 조사해본 결과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모두 꾸준히 높은 채택 비율을 보이는 과목은 한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학년을 기준으로 볼 때 채택 비율이 높은 과목은 한문(84.04%), 진로와 직업(58.51%), 생활외국어(40.43%) 순으로 나타났다. 3개 학년도 선택 과목별 채택 학교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이하 〈표 9〉와 같다.

〈표 9〉 선택 과목별 채택 학교 비율

학년도 선택 과목	2011			2012			2013		
	총 학교수	채택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채택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채택 학교수	비율
한문	3,221	2,953	91.68	94	76	80.85	94	79	84.04
정보		1,376	42.72		32	34.04		28	29.79
생활외국어		1,124	34.90		35	37.23		38	40.43

학년도 선택 과목	2011			2012			2013		
	총 학교수	채택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채택 학교수	비율	총 학교수	채택 학교수	비율
진로와 직업					50	53.19		55	58.51
보건					16	17.02		13	13.83
환경					11	11.70		9	9.57

(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그런데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편성안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은 집중이수가 시행되면서 선택 과목의 이수 시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집중이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주당 1시간씩 6학기에 이수하였던 선택 과목이 2개 학기 집중이수를 시행하면서 주당 수업시수가 3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시간이나 1시간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2012학년도에 평균 수업시수가 높은 순서는 한문(91.49 시간), 정보(76.91 시간), 생활외국어(72.77 시간)이며, 2013학년도에는 한문(87.15 시간), 생활외국어(73.82 시간), 정보(73.46 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2012학년도와 2013학년도 선택 과목별 평균 이수 시수를 표로 제시하면 이하 <표 10>과 같다.

<표 10> 선택 과목별 3개년 총 이수 시수 평균

연도 선택 과목	2012			2013		
	총 학교수	총 시수	평균 시수	총 학교수	총 시수	평균 시수
한문	76	6,953	91.49	79	6,885	87.15
정보	32	2,461	76.91	28	2,057	73.46
생활외국어	35	2,547	72.77	38	2,805	73.82
진로와 직업	50	2,958	59.16	55	3,094	56.25
보건	16	612	38.25	13	493	37.92
환경	11	527	47.91	9	476	52.89

(비율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선택 과목에 대한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 중학교에서 교과 집중이수가 계속 시행된다면 여러 선택 과목 중 채택 학교 비율과 평균 이수 시수가 높은 한문, 정보, 생활 외국어, 진로와 직업 등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이러한 과목들에서도 집중이수를 하면서 이수 시수가 줄어든다면 집중이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집중이수를 하면서 이수 시수를 줄이지 않도록 권장될 필요가 있다.

## V. 결론: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의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반영 방안

2011학년도에서 2013학년도 중학교 입학생 대상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를 차기 국가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관련 지침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규정을 삭제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교과 집중이수는 교과목을 학기, 학년별로 집중이수하게 함으로써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이면(8개 이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줄어들고 학습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이제는 한 학기에 최대 12개까지도 이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침에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는 문구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12년 7월 인성 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개정에서 추가된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는 단서도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살아 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불필요한 단서가 되었다. 따라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는 “특정 교과목을 집중이수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여건과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이수로 편성할 수 있다”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규정을 살리되 학교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교과 집중이수에 대한 자율적 시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3학년도 입학생 대상 편성안에 대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기당 평균 이수 교과목 수는 10.7개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10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기당 평균 이수 과목 수 10.7은 2013학년도 입학생 대상 편성안 분석 결과이며, 2013년도는 2012년 7월 교과 집중이수 완화 정책 직후이므로 앞으로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교과 집중이수 지침에서 학기당 이수 과목 수에 대한 언급 부분은 삭제하고 교과 집중이수 시행은 가능한 한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기당 평균 이수 과목 수가 학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어떤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제한

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 집중이수 관련 지침 수정(안)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예시)

현행	개정안(예시)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4)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목은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4) 특정 교과목을 집중이수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여건과 교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중이수로 편성할 수 있다.

둘째, 집중이수는 반드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중이수를 시행하는 교과목의 기준 수업시수가 감축되지 않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편성안 분석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교과 집중이수 시행 여부는 이수 학기 수뿐만 아니라 주당 수업시수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집중이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으려면 주당 수업시수가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당 1시간씩 6개 학기에 분산이수하던 교과를 4개 학기로 줄여서 이수하게 하지만 3개년 수업 총 시수가 68시수인 경우에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집중이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제고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집중이수 대상 교과목들이 기준 수업시수가 20프로 감소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집중이수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학생의 요구에 따라 기준 수업시수보다 20% 증가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도 있다.

이밖에, 앞으로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가 교육과정 지침으로 제시되고 학교에서는 교과목에 따라 집중이수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교과 집중이수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가 차기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의미있게 고려된다면 국가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과 집중이수가 학교의 수업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업 혁신 우수 사례의 발굴과 수업 혁신에 대한 동료 교사 간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공유환경의 조성 등을 위한 국가 및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과 집중이수 시행을 통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시·도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년 ‘교과 집중이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한다. 이것은 2011년에 교과 집중이수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 현장에 축적된 노하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과 집중이수에 따른 다양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각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교과별 수업 혁신 사례 등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좋은 성과를 나타낸 학교나 교사들에게는 시설 설비 또는 연구 점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차기 년도에 더 많은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 집중이수와 관련하여 교내외 현직 교사들 및 대학의 연구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수업 연구회 또는 학습 동아리 조직을 활성화한다.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다양한 모임을 관찰 지역의 학교에 홍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구회 또는 학습 동아리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수업 혁신에 대한 동료 교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율 장학 및 자율 연수를 확산하고 이러한 연수를 위한 교과별 수업 전문 요원을 양성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집중이수는 교육 현장에서의 충분한 이해나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과 집중이수를 교과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의 혁신의 측면이 아니라 학기당 8개 교과 편성이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수업 시수 편성과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이제 교과 집중이수는 교육 현장에서 주입식 교육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사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교과 집중이수 관련 자율 장학 및 자율 연수를 확산하고 그러한 연수를 담당할 수 있는 교과별 수업 전문 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4. 교과 집중이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혁신을 위하여 학교 및 교사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과 집중이수 편성·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 교과 집중이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례가 손에 잡힐 수 있는 형태로 교사들에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와 같이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만화 기법 등 교사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교과 집중이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 혁신 방법에 대한 간략한 원칙과 풍부한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집중이수 시행을 통하여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업무량 감축 및 교직원 업무 경감 추진을 통하여 교사들이 수업 개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과 집중이수 시행을 통하여 수업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업무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 경감 추진을 통하여 교사들이 수업 개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공문서 유통량 감축,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 확대 시행, 교무행정지원팀 확대 운영, 보고

공문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업 개선의 노력으로 이어질 때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나 시·도교육청은 교직원 업무 경감이 수업 개선으로 이어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확산·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이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독려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교원의 업무 경감과 수업 개선의 관련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의 하나인 '단위학교의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성과'에 의거한 평가가 단순히 교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원의 업무 경감이 수업 개선과 어느 정도로 관련이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 평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입생 교과 미이수 및 중복이수 문제와 관련된 해결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맡기되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 참고할 근거는 국가에서 결정해줄 필요가 있다. 중학교는 공통 교육과정 기간이므로 교과 미이수로 판단되는 전입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충학습과정이나 기타 대안적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국가에서 지정하고 미이수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습 내용 및 시수의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입생 교과 미이수 및 중복이수 기준, 교과 미이수 전입생의 보충학습과정 이수 인정 기준, 미이수 및 중복이수 교과목의 고입 내신 성적 반영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질 관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출석률이나 기준 시수 등이 아닌 교과목별 교육과정의 내용적 기준에 의거하여 설정하는 문제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 설정은 후속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1년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될 시기에 교과 집중이수를 학교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가에 대한 분석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고자 한다. 홍후조(2011)와 이은정(2012) 연구가 제안했던 바와 같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교과의 교육적 위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6개 학기 동안 어떤 교과목을 어느 학기에 집중해서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인 판단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는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여, 교과 집중이수를 단순히 학기당 교과목 수를 줄인다는 점에서 어떤 교과목을 어느 시기에 몇 학기에 걸쳐 가르칠 것인가를 학교 자율에 맡겼던 접근이 과연 적절한 교육적 판단이었는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교과 집중이수와 관련된 교육 현장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난 4년간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안 분석을 통하여 찾아낸 수시 개정으로 인하여 교과 집중이수 정책이 학교 자율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교육 현장에 구현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과 집중이수 정책과 관련하여 현행의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a). **학교 단위 책임 경영을 위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09. 6·11).
- 교육과학기술부(2009b).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육과정기획과-2601**(’10. 5·31).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1호 일부개정.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
- 김재춘, 최필순(2012). 집중이수제 정책의 등장과 퇴장: 정책 실패가 주는 시사점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0(3), 123-140.
- 민경훈(2009).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음악교육의 위기. **음악교육연구**, 37, 1-33.
- 민용성, 최승현, 오은순, 양정실, 김현미, 한혜정, 박기화, 성기련, 정은영, 최의창, 최지연(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과 질 관리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2-1.
- 박순경, 백경선, 한혜정, 김대원(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0-21-2.
- 박순경, 김사훈, 김진숙, 백경선, 변희현, 안종욱, 양정실, 이광우, 이근호, 이미경, 이미숙, 이승미, 이혜원, 정영근, 한혜정(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1.
- 이근호, 박순경, 백경선, 박영창, 박인규, 김우섭(2010). 집중이수로 인한 전출입 학생의 교육과정 미이수(중복이수) 문제 해결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O 2010-4.
- 이미숙, 김진숙, 권점례, 김혜숙, 이영섭, 조강영, 안연순(2011).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모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1-13.
- 이은정(2012). 중학교 집중이수제 평가준거 및 평가내용 개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전세경(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실과] 교과군 구성에 따른 실과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의 쟁점 및 과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4(4), 19-43.
- 조석환, 이언주(2010). 도덕과 교육의 입장에서 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도덕윤리과교육**, 30, 257-276.
- 한혜정, 이승미(2013). 중학교 교과 집중이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3-5.

- 홍후조(2008a). 핀란드: 고등학교 교육. 강무섭 외(편). **고교체제 개편 및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 주요국의 고교체제 개편 및 교육혁신 동향**. 서울특별시교육청, 179-248.
- 홍후조(2008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08-27.
- 홍후조(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집중이수의 실행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40, 53-79.
- 홍후조, 강익수, 박하식, 이병호, 백경선, 박혜림, 이승미, 민부자, 이민정(2009).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09-01.
- 홍후조, 락병선, 허숙, 김정자, 박순경, 강현석, 김재춘, 소경희, 강익수, 백경선, 이승미(2009).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2009년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홍후조, 박순경(2002). 교육과정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국가수준교육과정 기준의 변화와 질 관리 방안의 개선을 중심으로. 2002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보고, 국가교육과정기준개선연구팀.

· 논문접수 : 2014-08-11/ 수정본접수 : 2014-09-25/ 게재승인 : 2014-10-13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nsive Course Taking Policy’ of Middle School Education for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Reform

Hye-Chong Han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eung-Mi Lee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e Intensive Course Taking Policy’ refers to the policy in which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llowed schools to reduce the number of subjects per semester to 8 or lower. This was to relieve the students’ work loads in the 2009 Curriculum Revision,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1. Curr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been driving to reform 2009 National Curriculu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he Intensive Course Taking Policy’ of middle school education should be dealt with in the next National Curriculum Reform through analyzing the school curriculum plans of the 94 middle schools randomly sampled by 3% of the total number of the middle schools for the new students of the year 2011, 2012, and 2013.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suggestions concerned with the fate of the intensive course taking policy of middle school education. Firstly, the present precepts written in the General Guideline of the 2009 Curriculum Revision concerned with The Intensive Course Taking Policy needed to be paraphrased without any restriction to the number of subjects per semester. Secondly, it should be discouraged at the national level that the class hours of the subject which is taught through the Intensive Course Taking are reduced. Besides, supporting strategies for innovating instruction though the intensive course taking, and ways to reduce teachers’ burden of administrative tasks in order for them to concentrate on preparing for their teaching has been suggested.

Key Words : The Intensive Course Taking Policy for middle school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precept, electives in middle school curriculum, class hour per week

